

「조선慰安婦징발」 정부보고서 요약

日帝는 일본 군대의 사면개입해 철저한 관리하

간호부 등 명목 페어

위안부 모집 32년최초

안부를 조달했다. 43년부터는 「조선인 여성들의 위안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사기에 의한 모집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자, 19세기 아프리카에서의 흑인 노예사냥과 비슷한 수법의 사람사냥이 자행돼 위안부를 충원해 갔다.

수술 및 배치 인신매매와 같은

로 모집한 경우에는 매춘업자가 여관 같은 곳에 감금시켰다가 숫자를 채워둬 적지로 보냈다.

대량몰입 때에는 경찰, 군대관청들의 유기적협조 아래 비이치는 창고, 휴업중인 상가건물, 군부대 창고 등에 집합시켰는데, 집결지는 주로 서울과釜山이었다. 수송은 군병참부의 책임하에 군용화물차, 군용수송선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북상하는 군용화물차에 의해 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라는 공娼제도의 실태 및 그 진화상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규명됐다. 정부가지난해 말부터 수집한 각종자료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당시 韓人 여성들의 恨 맺힌 삶의 기록이다. 해방 이후 최초로 日帝下 군대 위안부들의 실태의 일부를 정리해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軍사령관이 창설 起案

군대위안소 설치배경

1918년8월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의 러시아 여성에 대한 強姦 사건이 빈발해 性病이 만연했다.

性病의 만연은 군의 전투력 저하를 가져왔고, 여기에다 滿洲 침략후인 1932년 1월 이후 시작된 중국과의 전투에서 日軍 병사들의 強姦 사건이 빈발, 韓人 여성들의 反日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岡村 寧次 총장이 군대위안부의 창설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군대가 전

性病 만연하자 「위험없는」 「종은대우공장·식당일」 미

신때에 수법으로 모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38년 이후 40년까지는 매춘업자가 군의 허가 아래 娼館 娼館들의 도움을 얻어 가난한 농부의 딸을 간혹부, 군간호보조원 등의 명목으로 끌어 위안부를 조달했다. 41년 7월 「관공리 특별대우공장」이 개시돼 약 70만명의 병력이 북만주에 집결했다. 당시 관공리사령부는 총독부와의 동조로 군내에 동원병을 모집해 하말, 면장의 책임 아래 8천명 정도의 위

주 중국으로 보내졌고, 부산목포 인천 등지에서는 군용수송선을 이용, 시모노세키 등을 거쳐 上海, 마산, 필리핀, 오키나와, 수마트라 등지로 수송됐다.

비질안에 위안소도

아무리 輿地라고 해도 위안부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는 거의 없었다. 현지 주둔지에 도착하면 위생사, 위생병이나 酒保係의 상사 혹은 회계수위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졌다.

조기의 대표적 위안소 (上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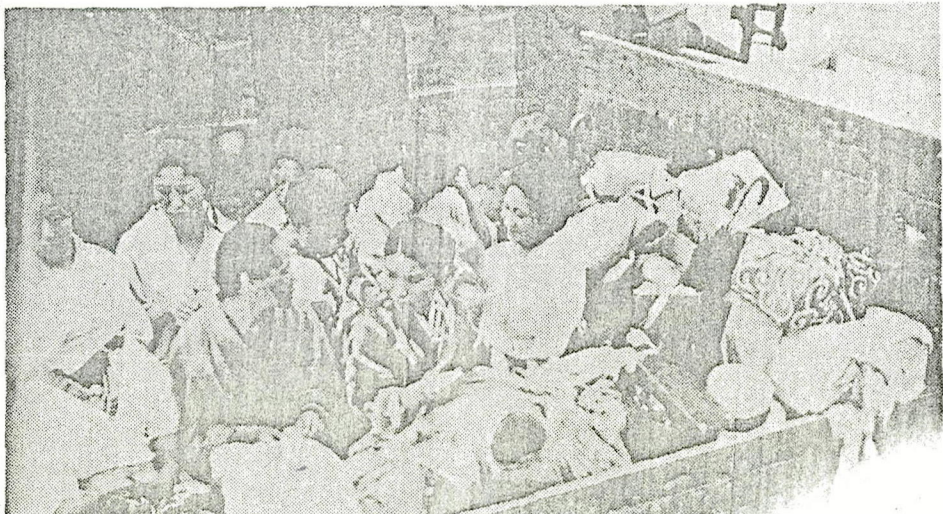
목조바라크 10棟 정도로 각동은 다다미 4장만 정도의 작은 방 10개로 돼있고, 관리棟과 함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였다.

각 방은 나무판자문에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씩 놓여있고, 가로 30cm 세로 50cm의 창이 하나 있었다. 창 아래쪽 3분의 2는 간유리, 상부는 투명유리였다.

위안소 관리 소년군 막사와

같은 건물들 짓거나 민간인 집들 빌렸으며, 마닐라에서는 집을 사용하기도 했다. 군의 관리규칙을 만들 어 위안소를 직접 관리, 감독했다. 위안소 개설, 위안소 운영의 휴폐업 위안부 수자, 위안부의 귀환 자격, 위안부와 매춘업자 간 수입 배분, 영업시간 등 모든 사항이 군에 의해 결정됐다.

위안관리는 군의부에서



위안부들의 생활 모습